내가 왜 떴게?

본인이 강림했었네



야옹이 작가

●야옹이 작가, 여신강림 : 야옹이 사진이 온라인 세상의 온도를 확 올려놨다. 진짜 야옹이가 아니라 사람이다.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여신강림'을 그리는 야옹이 작가가 화제의 주인공. 그동안 1991년생이라는 정보 외에는 통 알려진 게 없던 이 작가의 연예인 뺨치는 얼굴과 몸매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알고 보니 작가로 데뷔하기 전 피팅 모델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고. 여신강림의 여신은 다름 아닌 작가 자신이었던 것이다. 야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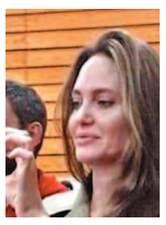
혼자 사는 것도 괜찮네



한혜진

●한혜진, 결별근황 : 모델 한혜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알려왔다. "이제야 내 손에"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그의 활동사진을 담은 책이 등장하고 있다. 한혜진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깜찍한 표정의 셀카 영상도 볼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잠시 하차해 휴식기를 갖고 있는 한혜진. 어때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진짜 졸리의 미소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엄마 미소 : 평소 보기 힘든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일상 모습이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자신의 쌍둥이 자녀들인 녹스, 비비엔의 가라테 경기를 관람하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적인 여배우가 아닌 평범하고 수수한 졸리의 얼굴에는 엄마 미소가 한 가득이다. 이게 연기가 아닌 졸리의 진짜 미소죠(PS. 태권도를 추천합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대타 문경찬' 케이스로 본 야구장의 '불문율'

그만하자는 김기태 vs 내 팀만 바라본 한용덕

〈KIA 감독〉 〈한화 감독〉

한 쪽 메시지 전달 안될때 돌발 대응
교체 뜻 오해…감독에 화내는 투수도

크게 진 상황서 1루수 물러나 수비땐
너희가 이겼으니 그만 끝내자는 표현



한화 한용덕 감독, 13-7 리드한 9회말 2사 상황서 마무리 정우람 기용→KIA 김기태 감독, 투수 문경찬 대타 응수

이번에도 '불문율'이 화두다. 26일 광주경기에서 한화 이글스가 13-7로 앞선 9회 2사 1루 때 '클로저' 정우람을 마운드에 올리자 KIA 타이거즈는 대타로 투수 문경찬(35번)을 투입했다. 사실상 분위기가 갈린 상황에서 투수를 바꾼 것에 대한 항의성 표현이었다.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50)은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한화 이글스전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상대 한용덕 감독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홈경기에서 비교적 큰 점수차로 이미 승부가 기운 상황, 9회말 2사에서 상대가 마무리 투수를 투입하는 모욕을 준다면 나는 투수를 대타로 내보낸다'로 요약된다.

김 감독은 2012년에도 한 차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자 망설이지 않았다. 어떻게 해석할지에는 여러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야구장에서 오가는 언어는 이처럼 매우 복잡하다. 특히 그 해석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종종 큰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미스 커뮤니케이션은 같은 팀, 상대 팀을 구분하지 않는다.

홈경기에 등판한 에이스가 7회초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한 상황. 팀은 5-0으로 앞서고 있다. 투구수는 90개. 감독은 호투한 에이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교체를 명한다. 밖에서 보기에는 매우 상식적인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속으로 크게 화를 내는 투수도 있다. 왜일까? 한 투수 코치는 "선발투수가 홈경기에서 호투해 승리를 앞둔 상황이라면 이닝 중간 주자 없는 상황에서 교체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투수가 팬들에게 가장 큰 박수와 환호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감독은 에이스를 배려하기 위해 이닝 종료 후 교체를 지시했지만 투수에 따라 '감독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험악하게 빈볼이 오가는 경우도 사전에 한 쪽이 분명하게 건넨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 후반 점수가 크게 뒤진 경우, 무사 1루에서 1루수가 베이스에 붙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수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너희가 이겼다. 그러니 경기를 빨리 끝내자'는 표현이다. 아직 3이닝이 남았는데 감독이 3,4번을 교체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상대방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는 등 게임은 평탄하게 흘러간다.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라운드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 효율적인 경기 마무리를 위해 이 같은 의미전달이 오간다. 그러나 상대 팀이 아랑곳 하지 않고 도루도 하고, 작전도 낸다면 곧 빈볼이 날아온다.

김기태 감독의 파격적인 대응이 나온 것은 이 같은 그라운드 언어의 해석 차이가 배경이 될 수 있다. 한용덕 감독이 KIA 홈 팬들과 상대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6점차로 앞선 9회말 2사에서 마무리 투수 정우람을 등판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팀 전력관리에 집중한 모습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감정싸움은 많았다. 팬들도 9회말 2사 투수교체에 대해서는 야유를 많이 보냈다. 역대 감독 중 가장 신사적인 품성으로 잘 알려진 한 감독도 베테랑 상대 감독이 마지막 타자를 앞두고 투수를 바꾸자, 자신도 모르게 '주먹감자'를 날린 사례도 있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한진그룹〉

주주 동의 부족 사내이사직 부결
총수가 경영에서 밀려난 첫 사례
2대주주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타



조양호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자신이 20년간 맡아왔던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73.84%인 700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했다.

대한항공 정관에는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날 조양호 회장은 연임을 위해 참석 주주 3분의2인 6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5%가 부족해 부결을 막지 못했다. 조양호 회장은 1999년 4월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특히 국내 대기업 총수가 주주권 행사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밀려나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조 회장은 그동안 이사 연임을 가결시키기 위해 우호세력을 결집해 왔지만, 주주총회 전날인 26일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56%)이 장고 끝에 연임 반대 결정을 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우기홍 대표이사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의 건 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됐다고 해도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 한진칼-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여전하고,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사장(등기임원) 역시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다. 또한 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 지분 33.3%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주주총회 직후 "사내이사직은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다시 일어서라" 팬들이 되살린 축구의 봄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2년 전 이맘때 한국축구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쇼크의 연속'이었다.

축구대표팀은 3월 23일 원정으로 치른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중국에 0-1로 졌다. '창사 참사'는 통산 두 번째 중국전 패배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다. 퇴진 요구가 빗발쳤다. 6월 13일 카타르 원정에서 '도하 참사'(2-3 패)를 당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감독은 경질됐다.

팬들은 이미 한국축구에 등을 돌렸다. 신태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천신만고 끝에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지만 팬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감당하기 힘든 비난을 쏟아냈다. 게다가 '히딩크 영입'이라는 광풍까지 몰아쳤다. 10월 유럽 원정 2연패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일은 꼬일 대로 꼬였다. 한국 축구사에서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황상태'는 한동안 지속됐다.

지옥과도 같은 국면에서도 얻은 건 있었다. 바로 팬의 소중함이다. 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서운지를 일깨워준 시간들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앞둔 3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미어터졌다. 경기장에 들어가기 조차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국축구는 예매 없이는 입장을 못하는 매진의 연속이다. 벌써 6경기 째 A매치(대표팀 간 경기)의 표가 동이 났다. 2년 전을 떠올리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특히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월드컵경기장(6만4338명)을 가득 채웠다는 건 팬들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01년 개장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역대 9번째 만원 관중이다.

한국축구는 올 초 아시안컵에서 실패하며 주춤했다. 하지만 팬들은 다시 일어서라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상암에 울려 퍼진 6만의 함성 속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경기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허나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이다. 최근 축구장은 '아이돌 문화'를 방불케 한다. 손흥민을 비롯한 기존 스타플레이어뿐 아니라 이승우, 이강인, 백승호 등 신예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경기는 물론이고 이런 스타들을 보기 위해 팬들은 경기장을 찾는다. 선수 캐릭터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관중 증가는 축구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맞물린다. 그만큼 한국축구의 상품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는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축구인들의 몫이다. 축구협회는 입장권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을 짜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각종 이벤트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기 좋다. 이런 건 지속적으로, 그리고 멀리 보고 진행해 가기를 바란다.

2019년 한국축구의 화창한 봄은 팬들이 보낸 성원 덕분이다. 이제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면 축구발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한국축구는 경기력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그러면 팬들의 즐거움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게 한국축구의 지상과제다.

전문기자·체육학 박사 choihg2@donga.com